



영화 '군함도' 내일 개봉

내·외적 목적인 군인역

“태후” 때와 전혀 달라”

송혜교와 10월 결혼 화제

한류스타 송중기(32)가 영화 ‘늑대소년’(2012) 이후 5년 만에 영화 ‘군함도’로 스크린에 돌아왔다.

24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송중기는 오랜만에 작품 출연이라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 듯하면서도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평소 류승완 감독의 열혈한 팬이었다는 송중기는 사실 ‘군함도’ 시나리오를 받기도 전부터 류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한다.

“군대 휴가 나와서 류 감독의 ‘베테랑’을 두 번 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 매니저가 심심할 때 읽어보라고 준 ‘베테랑’ 시나리오보다 실제 영화를 보니까 2~3배는 재미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제 친구지만 (유)아인이가 정말 부럽다. 좋은 영화 찍었구나 생각했죠. 또 류 감독의 ‘주먹이 운다’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영화 다섯 편안에 들 정도입니다. 한 9~10편 정도 봤죠. 류 감독의 영화는 시원하고, 통쾌하고 재미가 있어서 꼭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송중기는 일제강점기 탄광섬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수백 명의 탈출극을 그린 ‘군함도’에서 광복군 소속 OSS(미 전라사무국) 요원 박무영 역을 맡았다.

독립운동의 주요 인사를 구출하려는 임무를 받고 군함도로 잠입하지만, 결국 수백 명의 조선인이 모두 섬을 탈출할 수 있게 이끈다.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총격과 검술 등 액션까지 다 되는 인물이다. 송중기를 한류 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유시진 대위 이미지와 다소 오버랩된다. 그러나 같은 군인 역할이지만 내적·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후”때는 평소 제 모습을 담았죠. 능글맞은 것도 그렇고, 김은숙 작가가 써준 캐릭터에 실제 제 모습을 넣었죠. 그러나 ‘군함도’에서 박무영이라는 캐릭터는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내적, 외적으로 가벼운 것은 모두 뺐던 것 같습니다.”

송중기는 그러면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를 떠나 33살 청년으로서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았다”면서 “그 영향으로 예전에는 인터넷 뉴스포털에서 연예면을 먼저 봤다면 요즘에는 사회·정치 분야를 많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송중기와의 대화는 저절로 예비신부 송혜교로 옮겨갔다. 얼마 전 그는 오는 10월 31일 송혜교와의 결혼한다는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청춘스타’로서 한창 활동할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 대한 부담감이 없었는지 물었다.

“그런 부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혜교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어서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혜교씨는 저보다 선배이고 같은 동료지만, 생각이 깊은 분입니다. 배우로서, 사람으로서 옆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치관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는 모범적인 가정생활로 유명한 차태현을 롤모델로 꼽았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배우 생활하면서 차태현 선배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사람이 태현이 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굉장히 맛있는 분이죠.” 내친김에 차태현처럼 ‘다둥이 아빠’ 대열에 들어설 계획이 있는지 묻자 “살면서 계획해보겠다”며 웃었다.

송중기는 2008년 영화 ‘상화점’으로 데뷔했다. 이어 2008~2009년 KBS 2TV 주말극 ‘내 사랑 금지옥엽’과 드라마 ‘트리플’(2009), ‘산부인과’(2010), ‘성균관 스캔들’(2010), 영화 ‘마미이’(2010), 영화 ‘늑대소년’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넓혔다. 기존에는 ‘미소년’, ‘꽃미남’ 이미지가 강했지만 근 제대 후 ‘태양의 후예’를 통해 상남자로 거듭났다.

“팬들은 송중기라는 배우의 밝은 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스스로 어두운 면을 연기할 때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서늘한 역할, 장르적으로도 서늘하고, 어두운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배역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요. 또 연기 잘해서 작품에서 허투루 안 쓰이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한편 개봉을 이틀 앞둔 영화 ‘군함도’가 역대 한국영화 사전예매량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함도’는 24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예매율 65.1%, 예매 관객 수 21만1명으로 실시간 예매율 1위에 올라섰다. 이는 한국영화 사상 최대 사전예매량으로, 종전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기록(9만 7천명)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전했다.

지창욱, 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 성료

中·日 등 각국서 팬 6천명 몰려 한류 배우 입증

배우 지창욱(30·사진)이 다음 달 14일 군 입대를 앞두고 팬들과 마지막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소속사 글로벌이엔터테인먼트는 24일 “지창욱이 지난 2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데뷔 10주년 겸 군 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각국 팬 6천명이 왔다”고 밝혔다.

지창욱은 오프닝곡으로 드라마 ‘첫 키스만 일곱번째’에서 선보인 곡 ‘키싱 유’(Kissing You)를 부르며 2층 객석에서 등장했다. 그는 이어 데뷔작인 영화 ‘슬리핑 뷰티’(2008)부터 최근 종영한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까지 지난 10년간 작품을 돌아보며 팬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뮤지컬 관련 토크를 이어가던 중에는 ‘쓰릴미’, ‘그날들’속 곡들을 열창해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또 팬들이 선정한 ‘인생캐릭터’ 1위에 등극한 ‘수상한 파트너’속 지창욱 캐릭터의 명장면을 재연했다.

지창욱은 액션과 로코(로맨틱코미디) 중 다시 도전하고 싶은 장르를 묻는 말에는 “제 체질은 로맨스다. 액션도 물론 다시 하고 싶지만 제대 후 로맨스 위주의 작품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웃으며 답했다.

2부에서는 어릴 적 살던 동네부터 학교, 친구들과 놀던 골목, 어머니가 일하던 공간, 자신만의 비밀 장소 등이 공개됐다.

콘서트 말미에는 지창욱이 팬들을 위해 마련한 손편지를 담당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는 “그동안의 10년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앞만 보며 달렸다. 여러분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2019년에 모두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를 전했다.

연합뉴스

PD들 제작거부 ... ‘PD수첩’ 오늘 결방

“한상균 기획안 목살 당해”

‘100분 토론’ 앞당겨 방영

PD들이 제작거부를 선언한 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결국 오는 25일 결방한다.

MBC는 “내일 밤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PD수첩’은 결방하고 대신 ‘100분 토론’을 앞당겨서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PD수첩’ 연출을 맡은 PD들은 이날 상담동 MBC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부에서 부당하게 아이템 기획안을 목살했다며 제작거부를 선언했다.

PD들은 회견에서 “8월 1일 방송을 위해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한 두 개의

시선’이라는 기획안을 제출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도 ‘유가족이 우는 장면을 최대한 삭제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지시가 많았다”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 담당 시사제작국장과 편성제작본부장을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MBC는 이에 대해 “‘한상균 기획안’은 자신들이 소속된 언론노조의 상급조직인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명운동과 사실상 직결돼 있어 결코 승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작거부에 따른 결방 사태 등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작진에게 있고 엄격한 사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July 25th.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and Additional Info. Lists EBS 1 programs including '왕초보 영어', '세계견문록', '한국의정', etc.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Includes dates like '7월 25일(음 6월 3일 癸丑)'.